

음주 등 잇달은 범계행... 불교계 '된서리'

범계불감증 한국불교, 대책 없는가

다시 범계 문제가 터졌다. 이번에는 조계종이 건립한 공익 연구 시설에서 스님들이 술자리를 열었고 일간지 신문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술자리를 가진 스님 중에는 연수원장 조계 스님(중앙종회의원 겸직)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2명이 포함돼 있어 지도층 스님들의 도덕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앞서 중앙종회의원 무에 스님은 서울 조계사 인근 포장마차에서 여성과 술자리를 가져 공개 참회를 했다. 약 한달 사이에만 불교계 지도층 인사인 중앙종회의원 5명이 범계행위가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불교가 전반적으로 범계불감증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12년 백양사 도박 사건으로 종단이 일대 혼란을 겪었고 자성과 쇠신 결사를 천명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범계불감증은 율학 관련 스님들과 학자들은 수행 속에서 계율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계를 경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은 "세간의 법을 변호사와 판검사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듯이 계율은 율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스님과 불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계율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지계에 대한 인식 역시 미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도훈 한양대 교수는 제도과 스님 자신 안의 감시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연이은 범계행위는 불교 안의 상호적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계율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내 안의 부처님, 집단의 시선, 처벌인데 지금 한국 불교엔 이 셋이 모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중대한 범계행위를 해도 언론에만 노출되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고, 집단의 시선이 외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계율과 현실의 괴리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조계종 스님에게 작동하는 계율과 법은 사본율, 범람

계, 중현·종법, 청구 등이다. 이들은 모두 그 양이 방대하고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제도적 기층이 존재한다고 해서 현대적 중현·종법과 전통적 율장을 일원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율장의 정신을 살리면서 현실적인 정규를 제정하거나 '승려법' 보완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계종 자성과 쇠신결사 추진본부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해 시대에 맞는 청구 제정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혜남 스님은 "부처님께서도 '소소계'에 대해서는 시비하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율장의 수백 가지의 계율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전

계율과 현실 상황 괴리 시대 맞는 규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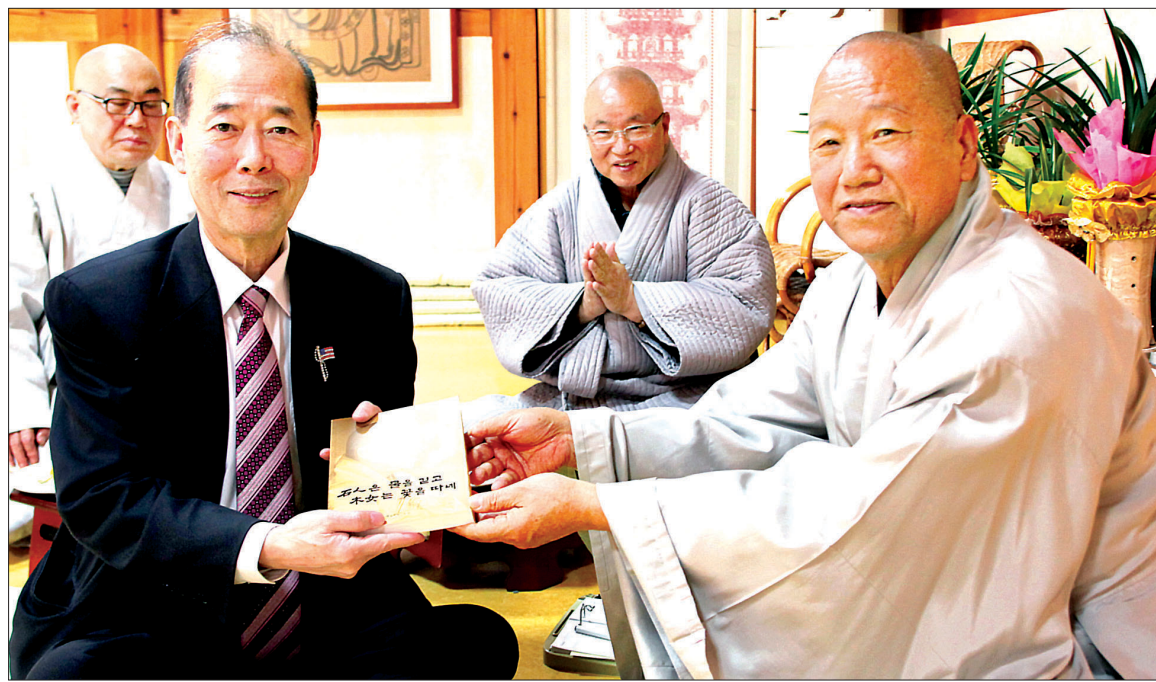
개인 지계 의식 더불어 현실적 청구·법 보완돼야

"양형 기준 강화" 주장도

부 지키기 어렵다면 그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 새로운 규범과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대에 맞는 청구 제정과 법 보완과 함께 범계 행위의 평등한 처벌과 기준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자랑 동국대 HK연구교수는 "안 지켜도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 청구와 법은 무용지물"이라며 "만들어진 규범과 제도를 꼭 지켜야 한다는 의식과 이를 어겼을 경우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도훈 교수 역시 "무엇보다 벌이 공정하고 엄정해져야 한다"며 "지도층 승려들의 범계 행위를 일벌백계하고, 계율을 현대화하고, 집단의 시선이 계율을 지키는 쪽으로 전환하도록 승풍을 진작하는 문화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칼럼 31면



종정 스님과 석학의 만남 수행과 학문분야에서 각자 깊이를 더해온 수행자와 학자가 만났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미국 오바마 정부의 명예장관인 이흥범 박사는 12월 6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환담을 가졌다. 이날 환담에서 진제 스님과 이 박사는 평화로운 세계 구현을 위한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데 불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 박사는 오바마의 '키친 캐비닛'으로 국정자문역할을 맡고 있다. 사진=박경수 부산지사장

“요익중생 정신으로 세상을 밝혀주십시오”

종정 진제 스님 예방한 오바마 정부 명예장관 이흥범 박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키친 캐비닛' (kitchen cabinet, 대통령과 격의없이 답사를 나눌 수 있는 지인으로 여론 통로 역할을 함)인 이흥범 박사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예방했다. 한국이 동아시아 문화의 원류라고 주장한 이흥범 박사의 저서 《아시아 이상주의 (Asian Millenarianism)》는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역사 필독서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 책을 읽고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 박사를 명예장관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12월 6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이뤄진 만남에서 진제 스님과 이 박사는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종교 역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남북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운을 뚫은 진제 스님은 "미국에 방문했을 당시 여러 종교인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다. 불교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며 "미국인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를 취할 줄 아는 개방성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5일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사상'이

미래를 위해 주변국들의 행보를 보며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세계 패권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며 "이는 역사정신에 있으며 한국을 일으키고 인류에 새로운 정신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것은 불교"라고 말했다.

YTN 미래전략 포럼서

창조경제 특별강연

12월 5일 동국대 강연서

“無我투쟁이 평화 도래” 주장 불교가 역사정신 선도 가능

진제 스님 또한 "종교인들이 세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앞장 설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로마 교황 등 종교인들이 만나서 남북평화를 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흥범 박사도 "불교의 요익중생 정신을 되살려 세계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12월 5일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사상'이

라는 주제로 이 박사의 초청강연이 열렸다.

이 박사는 "유아에 집착하는 역사와 정치 탓에 세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필요한 역사의식이 불교의 무아를 차용한 무아투쟁"이라고 역설했다. "모두를 위해 자기를 버릴 수 있는 무아의 자아투쟁을 할 때 위대한 자유, 홍익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민주주의의 또한 도래한다"고도 덧붙였다.

이흥범 박사는 지난 12월 3일 국내의 석학을 초청, 한국의 비전을 구상하는 의미에서 기획된 '2013 YTN 미래전략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강연에서 이 박사는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국민 단합과 정치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외교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과 같이 민주주의 위에 원천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창조경제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흥범 박사는 오는 12월 1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국정운영에 대해 조언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중앙종회, 승풍실추 의원 조사한다

의장단 연석회의 5일 결의... 관련자 5명 조사

최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잇따른 승풍실추와 관련해 중앙종회가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항적)는 12월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0차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종회의원 스님들의 승풍실추 사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스님들은 호법분과위원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단에 보고할 것을 결의했다. 중앙종회 차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 역시 특위의 결과보고 이후 의장단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는 연수원 술자리 사태와 관련된 조계 스님과 의원 2명이며, 조계사 인근 대중 주점에서 여성과 술을 마신 무에 스님, 여직원 성추행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각급 스님, 총 5명이다.

이와 함께 연석회의는 내년 3월 임시총회에 청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청구위원회는 국회윤리위원회와 같이 종회의원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잇달은 성추문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 종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특강을 개설하기로 했다. 인권특강은 3월 임시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종회의장 항적 스님을 비롯해 부의장 정묵, 법안 스님, 총무분과위원장 일문, 교육분과위원장 해림, 포교분과위원장 장명, 사회분과위원장 대오, 재정분과위원장 성철, 인사심의특위위원장 성직, 사무처장 경우 스님이 참석했다.

한편 종회의장 항적 스님은 12월 5일 열린 중앙종회의원 연수원에서 일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밤샘 술판을 벌인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항적 스님은 "지난 11월28일 저녁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일부 스님들이 불음주계를 범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당시 자리에는 몇몇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돼 종단을 비롯한 중앙종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종회 의장으로서 종도들과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범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종회의원들은 자성과 함께 탐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천태종, 2014년 예산 187억원 확정

95차 종의회서 결의... 올대비 9.2% 증가

천태종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2% 증가한 187억 4982만 5000원(일반 예산 119억 6584만 5000원, 재단법인 예산 67억 8398만 원)으로 확정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는 11월 30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95차 정기 종의회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종단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일반예산 중 중앙종무기관 예산은 올해보다 9.2% 증가한 119억 6584만 5000원, 재단법인 예산은 올해보다 2만원 감소한 67억 8398만원, 특별예산은 올해 대비 1.2% 증액된 142억 7312만원으로 확정됐다.

김주일 기자

970호 INDEX

시방세계 5 종합 2·3
 조계종 국민 힐링투어 현장
 종교인 시국선언 어떻게 봐야하나
 석조문화재 방치 심각
 조계종 중앙종회 연구 개최



강의실종계 8
 공종원-성철 스님 열반20주기강연

“치유의 어머니 정목 스님의 행복 명상으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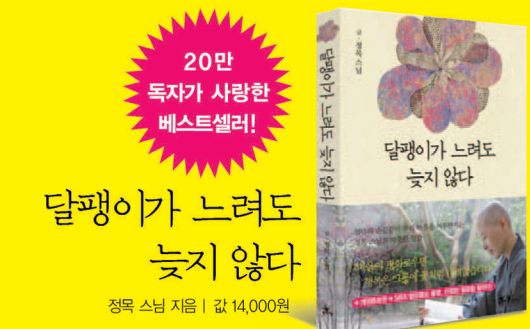
SBS 힐링캠프, 아이러브인을 통해 감동을 선사한 정목 스님의 행복을 키우는 마음연습!



분노에 끌려다니는 이들을 위한 명상, 원한과 상처를 떠나보내는 명상, 좌절과 우울의 터널을 지나 불안을 잠재우는 명상 등 힘들고, 아프고, 정처 없는 마음들에게 보내는 정목 스님의 간절하고 따뜻한 기도!

명상CD 수록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스님 저음 | 값 14,000원



“인생은 저마다의 속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세요.”

엄마의 손길같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목 스님의 따뜻한 말씀